

社會인식과 質의 향상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70년초 호기심만 권유반으로 1개월과정의 電算교육을 받은 것이 나의 전공을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프로그램言語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했고 점차 시스템에 대한 것까지 알게 됐다. 그후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항상 만족을 못하고 사용자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됐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조직이나 집단의 관리운영이 잘 돼나가는 것을 볼 때면 소프트웨어맨(S/W man)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덤으로 얻으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개중에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않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럴때는 서글픔을 느낀다.

컴퓨터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에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는 대개 컴퓨터실 사람들만의 고유업무라고 여기고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려주



황규선

쌍용컴퓨터 시스템사업 1 부장

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電算업무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산 요원에게만 지라고 할 때 암담한 생각마저 들곤 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컴퓨터가 있는 곳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사용자가 쓰기 편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됐다.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아주 멋진 것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소프트웨어맨들이 점차 사용자인 남을 의식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또 자신의 일이 남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면서부터 업무자체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됐다.

컴퓨터 이용자들이 수많은 소프트웨어맨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를 인정해주는 풍토가 조성될 때 국산소프트웨어의 질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